토론 요약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0년간의 노력 : 회고와 전망

2013년 9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세션 1. 2003년 협약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나?

회의 시작에 앞서 좌장 아이카와 노리코 교수가 참석자 전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제1세션의 주제를 설명하고 발표를 맡은 유네스코방콕 사무소 팀 커티스 문화부장과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 관장 아마레스와르 갈라 교수를 소개했다. 아이카와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 커티스 문화부장이 발표를 시작했다.

커티스 문화부장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 주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발표의 포문을 열었다. 커티스 문화부장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명실 공히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문화 기관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태지역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며, 목록에 등재된 전 세계 무형유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커티스 부장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대한 긍정의 평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 기관이 당사국 등 무형유산 주체들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인식 제고에 성공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커티스 부장은 인식 제고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성공에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실제 보호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갈라 교수는 유산 보호의 증진을 위해 사물에서 지식, 배타에서 포괄 접근, 수동에서 능동, 소극에서 적극, 일원에서 다원으로 방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형유산을 다루는 방식은 연행과 전후 맥락의 필요성, 연행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연행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유형유산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형유산이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사실은 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갈라 교수는 발표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무형유산을 '박물화(museumizing)'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패널토론

임돈희 동국대 사학과 석좌교수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는 무형유산 보호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그동안 펼친 무형유산 보호 노력은 공동체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무형유산 연행을 통해 자기표현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정체성은 공동체 통합은 물론 전통 유산의 지속 가능한 연행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임돈희 교수는 공동체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아울러 서열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돈희 교수에 따르면 서열화는 공동체 간에 갈등을 야기한다. 공동체는 때때로 특정 무형유산이 자신의 것으로 믿으며, 다른 공동체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열화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신을 공유하는(sharing mentality)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형유산은 갈등 유발이 아니라 공동체의 통합과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임돈희 교수는 갈라 교수가 제기한 '박물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며, 따라서 연행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무형유산 보호 조치가 인위기는 하지만 임돈희 교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두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와양사무국 차장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는 참석한 연사들이 모두 서로 다른 배경에서 나고서 자라 활동해 왔기 때문에 무형유산을 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커티스 부장이 정량 데이터를 제시했다면 갈라 교수는 세 가지 사례로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는 커티스 부장의 관점에 동의한다면서 목록 등재 유산의 수 증가가 곧 보호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목록 개념을 다시 생각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에서 목록 작성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유형유산에 비해 비공식 보호 관행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커티스 부장은 무형유산이 대학의 교과 과정에 포함되거나 관련 연구가 수행될 경우 무형유산의 보호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는 계속해서 갈라 교수가 언급한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견해를 피력했다. 무형유산 보호 방법이 유형유산 보호 방식과 같을 수 없다는 갈라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사례를 제시하며 갈라 교수의 주장을 부연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지역 공동체들이 무형유산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연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문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이 인위라고 비판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는 무형유산을 완전히 잃는 것보다 이러한 형태로나마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는 보호(safeguarding)라는 개념과 이 용어의 진의를 환기시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목록 등재는 최종 목적이 아니다. 등재 시스템이 동기 부여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과정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그러나 유산 등재가 보호 증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기부여 요소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자유토론

토론 패널들은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산을 통한 창의성 계발 및 육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을 던졌다. 연행자의 참여 없이 무형유산에 관해 논하는 것은 '박물화(museumization)'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유산은 토론과 분석이 아니라 연행을 통해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연행 장소(fields)'의 보호와 관련된 질문이 제기되었다. 유산뿐만 아니라 연행 장소도 함께 사라지는 추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커티스 문화부장은 두 질문이 유산 보호의 현황과 관련이 있다고 답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상 세계에서는 정부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형유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경제력 지원 부족으로 명맥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3년 협약 비준 국가는 늘고 있으나 무형유산의 연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록 작업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전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사진이나 찍고 그것이 무너지든 말든 방관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대하는 방식에서 근본부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비유로 목록 작업의 불충분성을 지적하고 무형유산 보호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돈희 교수는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항시 변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통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화 허용과 창의성 육성 범위에 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돈희 교수는 커티스 문화부장이 제시한 데이터를 언급하며 우리는 여전히 무형유산 보호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개선책이 등장하고, 새로운 법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방법론은 여전히 진화 중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노력은 성공 또는 실패로 양단할 수 없고, 이보다는 더 큰 규모의 과정 속에서 밟아가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심스럽게 표명했다.

세션 2. 무형유산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제2세션의 좌장을 맡은 팀 커티스 문화부장은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과 로데스 아리즈페 교수를 발표자로 소개했다. 기술 문제로 이삼열 사무총장의 발표를 먼저 진행한 뒤 아리즈페 교수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2003년 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서 직면한 도전들에 관해 간략히 설명했다. 무형유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보호 조치를 발전의 장애물로 간주하는 젊은 세대는 전통과 관습을 보호 대상으로 삼기에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삼열 사무총장은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와 혜택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다소 상세한 사례를 제시했다.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속성 강화, 인류 창의성 증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 가지 이유에 중점을 두고 무형유산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리즈페 교수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영상을 통해 발표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협약에 명시된 용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제시했다. 아리즈페 교수는 인류학 관점에서 용어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형유산의 경우 특정 용어의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한 용어들이 문화에 따라 미칠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한경구 교수는 아리즈페 교수와 이삼열 사무총장의 발표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구 교수는 우선 무형유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에 관해 언급했다. 현재 보호 대상 유산을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유네스코는 평화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국가 간에는 경쟁이 존재한다. 보호 대상 유산 결정권은 국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실제 유산 보유자가 아닌 국가의 요구와 이익 실현이 우선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한경구 교수는 이삼열 사무총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한국에는 어떤 종목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보호 대상 유산으로 선정되고 있는지 등 한국의 유산 보호 현황의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한경구 교수는 정체성, 진정성, 창의성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고 창의성은 증진되어야 하지만 무형유산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시점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무형유산은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형유산의 보호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 진정성 훼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경구 교수는 아리즈페 교수의 발표에 감사하다면서 인류학 관점에서 견해를 제시한 것을 무엇보다 높이 평가했다. 인류학자로서 아리즈페 교수는 관찰뿐만 아니라 행동에 직접 나섰다. 한경구 교수는 일반 의미와 다른 대중문화의 개념에 흥미를 보였다. 그는 대중문화에 있는 여러 의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특히 다양한 문화 간은 물론 단일 문화 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한경구 교수는 이삼열 사무총장과 아리즈페 교수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두 논고는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누가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과 정당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이해가 있지만 보호 주체와 방법에는 여전히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경구 교수는 또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관련한 별도의 논의가 없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다. 관습은 복제되고 공유되며, 유산은 어느 한 공동체의 자산이 아니다. 한경구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경구 교수는 끝으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마무리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 한경구 교수는 이 구절에 빗대어 무형유산을 대하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태도를 묘사했다. 즉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모든 무형유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보호해야 할 유산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일은 국가가 담당하기 때문에 유산 간 서열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디 메레 라투아부아부아 피지 태평양유산허브 문화담당관

아디 메레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2003년 협약의 영향으로 각국의 문화유산 정책이 강화됐음을 소개했다.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규모나 영향력이 현저히 작은 섬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약 비준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아리즈페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언어와 용어 정의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할 용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목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용어의 문제에서 기인한 수많은 논란은 이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필요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젊은 세대가 무형유산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발표자 모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유산 보호의 동기 부여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나아가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보호 실패가 가져온 결과를 보면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명백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다양한 국가들의 무형유산을 목록에 등재할 수는 있지만 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커티스 문화부장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적용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

투웨이밍 교수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주장한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의 견해에 동의했다. 또한 무형유산은 지성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 NGO,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투웨이밍 교수는 유형유산과 비교할 때 무형유산은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무형유산의 연행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관(landscape)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투웨이밍 교수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박물화(museumization)'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할 수 있다. 현대화와 전통, 정신과 육체, 세속과 종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투웨이밍 교수는 이는 제약이 아닌 해방을 뜻하고, 개회식에서 선보인 '아리랑' 공연처럼 무형유산은 즐기기 어렵지 않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투웨이밍 교수는 소수민족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공동체들은 무형유산 보호에 지속 참여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정체감은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투웨이밍 교수는 자기반영성(self-reflectivity) 향상으로 비판성 자의식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아리즈페 교수의 인류학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과 함께 의견을 제시했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다른 무엇보다 문화(culture), 유산(heritage), 유형(tangible), 무형(intangible)이라는 용어들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세한 맥락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에는 의견이 일치될 수 있으나 해당 용어가 표현하는 개념의 해석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유산 보호에 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경구 교수가 문제 삼은 국가 개입에 관해서는 무형유산 보호 방침을 시행해야 할 주체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회의 개최 및 목록 작성을 지원하며,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NGO 및 지역 공동체는 필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진행토록 하는 것이 현실과 실질에 들어맞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산을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 대상

유산을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각국은 나름의 기준과 정책을 세워 놓고 있다. 저마다 고유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록의 규모와 범위도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문화유산이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는 기능을 우선하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삼열 사무총장은 국가의 개입은 피할 수 없지만 공동체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션 3.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의 결과는 무엇인가?

제3세션 좌장 아마레스와르 갈라 교수는 세션 주제를 간략히 소개했다. 제3세션은 지금까지 적용된 방법론, 즉 목록 시스템의 기본 특징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발표는 일본 문화청 아이카와 노리코 교수와 중남미무형문화유산보호지역센터 페르난도 빌라포르테 메디나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협약으로 목록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아이카와 교수에 따르면 목록 시스템 적용 초기에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찬성했으나 유럽 및 남미 국가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국의 목록 등재 열의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 시스템은 수많은 제약과 단점을 드러냈다.

메디나 사무총장은 목록의 장단점을 직시하고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목록 시스템의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은 일부 지역이 과다 대표되고 목록들이 선의(good faith)에 의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디나 사무총장은 목록 시스템이 미친 영향과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패널토론

양쯔 중국 C2센터 사무총장

양쯔 사무총장은 협약에 의해 시행된 목록 시스템을 맥락에 따른 도구로 봐야 한다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양쯔 사무총장은 도구의 효과는 성취해야 할 과업, 도구 사용자, 도구 사용 방법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을 부연했다. 양쯔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목록에 내재된 장단점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목록 자체만으로는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목록은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목록이 어떻게 사용되고, 누가 작성하고 있으며, 그 목록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쯔 사무총장은 또한 목록 시스템이 성공 또는 실패라고 단정하기보다 맥락에 맞게 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실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양쯔 사무총장은 메디나 사무총장의 발언에 동의했다. 즉 목록의 효용성 평가를 정확히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 형식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는 사실에는 인정했다. 목록 시스템은 아직 시험 중이며, 보고 방식도 여전히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록이 무형유산 보호에 미친 영향을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박상미 교수는 인류학자로서 무형유산 목록 시스템에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목록이 인식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아울러 목록이 문화 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장단점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박상미 교수에 따르면 목록 시스템은 서열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단점도 안고 있다. 유산 종목이 목록에 등재되면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재 후 목록의 효용성 평가는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박상미 교수는 이에 따라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미 교수는 이어 목록 시스템의 장점들을 제시했다. 목록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작성되고 있지만 여러 층위의 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다. 즉 공동체, 연행자, 국가, 나아가 국제 차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박상미 교수는 목록 시스템이 협약의 일환으로 유지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에 단순히 의존하기보다 앞에서 언급한 각 층위의 주체들이 목록 작성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와 같이 국가가 목록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하는 경우 지역 공동체가 공정하게 대표로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유네스코는 서열화 및 과다 또는 과소 대표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과 긴밀한 협조 안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상미 교수는 목록 작성을 위한 전문 지식과 자금 지원을 공동체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

자유토론에서는 무형유산 종목이 목록에 등재되고 나면 해당 종목의 보호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패널은 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을 예로 들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맞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묻는 패널도 있었다. 그는 이들의 삶에서 어떤 면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지켜야 하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박상미 교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계가 유네스코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고 답했다. 박상미 교수는 소규모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무형유산 및 전통, 생활양식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형유산의 보호는 단순히 개별 전통의 보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체를 보호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익 향상과 명확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자립을 돕는 모든 지원 정책을 포괄한다.

양쯔 사무총장은 공동체 구성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상미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방법론 측면을 언급한 양쯔 사무총장은 공동체와 무형유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지 정확히 가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공동체와 무형유산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똑같은 전략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보다 상황별로 장애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분석하여 각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카와 교수는 목록 등재 유산의 추후 경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법을 자세히 제시했다. 국가는 해당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목록 등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동체와 무형유산의 지원 유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금 감면, 정부 보조, 인증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모두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이카와 교수는 보고서 작성 의무가 각국 정부에 공동체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아이카와 교수는 목록은 완벽한 시스템이라 할 수 없지만 조치를 취해 긍정의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메디나 사무총장은 공동체 강조가 2003년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서 유네스코에 강한 신뢰를 보였다. 메디나 사무총장은 지역 공동체 중심 활동이 유네스코의 최대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갈라 교수는 무형유산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NGO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갈라 교수는 공동체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무형유산 보호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소통을 촉구하며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션 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과제는 무엇인가?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은 제4세션의 좌장을 맡았다. 박성용 본부장은 이론 중심의 전날 발표와 달리 제4세션 발표자들이 사례를 구체화해 제시하면서 무형유산 보호 정책을 실행하는 현장에 중점을 두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4세션의 발표를 맡은 우르트나산 노로브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티민리 레 베트남 문화유산가치증진연구센터 소장, 파로가트 아지지 타지키스탄 문화부 차관, 아난야 바타차리아 인도 방글라나탁 대표, 다카하시 아카쓰키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을 소개했다.

노로브 이사장은 몽골이 개발한 무형유산 보호 프로그램의 성공 실행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이 몽골의 유산 보호에 기여한 바를 설명했다.

티민리 레 소장은 베트남이 무형유산 보호 및 목록 작성에서 달성한 성과와 직면한 어려움에 관해 보고했다. 티민리 레 소장은 전날 회의에서 제기된 모든 사항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강조했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법들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데르비셰프는 아지지 타지키스탄 문화부 차관을 대신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타지키스탄의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이루어진 도제제도의 영향력을 역설하고 이로써 무형유산의 부흥과 교육을 통한 공동체의 진정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타차리아 대표는 절멸 위기에 빠졌다가 소생하여 결국 전 세계의 명성을 누리게 된 무형유산 종목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바타차리아 대표는 지나친 홍보와 맥락 없이 연행되는 무형유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다. 바타차리아 대표는 무형유산의 상업화 문제를 지적하며 진정성을 고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은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정책 시행 이력과 현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특히 소규모 도서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 도서국에서의 무형유산 보호 증

진을 위해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각국이 자연 재해를 포함한 여러 재난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무형유산이 기여한 바를 설명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다섯 명의 발표자가 제시한 주요 이슈들을 간략히 정리했다. 먼저 전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설명하며 사례 연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스승–제자 관계의 전통 도제제도를 바탕으로 한 접근 방식을 실제 활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팀 커티스 문화부장이 전날 제안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 기관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또한 다섯 명의 발표자들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들이 제시한 방법은 지속 가능한 개발, 공동체 회복력 복원, 무형유산 수호자로서의 공동체 역할 강조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박성용 본부장은 토론에 참여할 패널들을 소개했다.

패널토론

로저 자넬리 미국 인디애나주대학교 민속학과 석좌교수

로저 자넬리 교수는 세 가지 이슈를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이슈다. 자넬리 교수는 무형유산의 관찰자로 남아 있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단순한 관찰보다 참여를 통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젊은 세대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자넬리 교수는 무형유산 보호의 필요성과 이행 방안으로 젊은 세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발표자들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자넬리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젊은 세대가 무형유산 보호 증진에 앞장서도록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더욱 효율 높은 전략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이슈로 자넬리 교수는 민족 다양성을 언급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세계화 추세에 맞서 문화 다양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족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전략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보호 방법으로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 민족 특성에 맞춰 적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아데 메일리알라 인도네시아 타마미니 대표

아데 메일리알라 대표는 먼저 노로브 이사장에게 몽골 전체 인구에서 유목민이 차지하는 비중을 물었다. 이어 몽골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해 언급했다. 메일리알라 대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어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겪은 개인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했다. 메일리알라 대표는 노로브 대표에게 몽골 정부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메일리알라 대표는 이어 아지지 차관의 발표문을 대독한 다스탄 데르비셰프에게 전통을 보호하는 최고의 '전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도제제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 지식의 전수를 위해서는 전통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메일리알라 대표는 바타차리아 대표의 발표에 덧붙여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성과 사례를 제시했다. 무형유산의 연행을 통한 생계 활동은 유산 보호와 함께 공동체 자립에 기여하는 동기부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메일리알라 대표는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에게 지리 영향과 소규모 도서국이 극복해야 하는 여러 제약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로라 미라노 필리핀대학교 교수

플로라 엘레나 미라노 교수는 필리핀의 사례를 제시하며 무형유산 보호가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과거 자국의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 소규모 공동체들이 미국의 독립 기념일에 초청을 받아 워싱턴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미라노 교수는 무형유산 보호 방법은 지속된 조정이 요구되고, 시행착오를 거쳐 수행되며,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문화가 살아 숨 쉬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내재된 생명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라노 교수는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사용된 방식과 다른 면모를 보이는 필리핀 북부 지역의 방법들을 소개했다. 미라노 교수에 따르면 이 상황은 달라서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라노 교수는 문화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정부 계획, NGO 활동, 지역 공동체, 국가 경제, 교역 및 산업 등 공동체와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

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불확실성에도 적응과 혁신으로 각자의 고유한 역사와 장소에 부합되는 무형유산 보호 방법을 지속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호철 안양대학교 문화정책학과 교수

류호철 교수는 먼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관련, 노로브 이사장의 발표 내용을 언급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무형유산에 관해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류호철 교수는 목록과 관련하여 전날 발표된 내용을 언급했다. 목록 작성은 결과나 목표가 아니라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교육이 필수라고 류호철 교수는 말했다. 젊은 세대가 무형유산에 노출되어야 조기에 무형유산 보호 개념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호철 교수는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목록 작성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로브 이사장이 몽골 사례를 발표할 때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류호철 교수는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로 젊은 세대를 교육한 경험이 있다면 관련 지식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호철 교수는 자국의 흥미로운 문화 관련 사례를 제시한 바타차리아 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류호철 교수는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은 바로 공동체에 돌아갈 큰 혜택에서 기인한다고 표명했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이 있다. 한국은 문화의 활용이 장려되는 대표 국가다. 지역 공동체들은 사회 결속 증진을 위해 그들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무형유산은 보호 대상에서 살아 있는 유산으로, 보존보다는 변화와 연행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는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류호철 교수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인식 제고에 임돈희 교수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류호철 교수는 무형유산을 경제성 자원으로, 공동체의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문화의 상업화라는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고 피력했다. 연행자는 청중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따라서 청중의 취향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는 그들이 보유한 문화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류호철 교수는 바타차리아 대표에게 자신이 활동하는 공동체에서 상업화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자유토론

노로브 이사장은 먼저 메일리알라 대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몽골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목 생활을 버리고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몽골의 무형유산은 위험에 직면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목민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몽골 정부가 주도하는 한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가 무형유산 전통을 전승할 수 있는 전용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무형유산과 관련된 기예와 다양한 종목을 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노로브 이사장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NGO, 보유자, 전승자 등은 무형유산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베트남의 목록 등재 유산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은 티민리 레 소장은 모니터 결과를 평가하고 공동체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된 시스템에 관해 설명했다. 티민리 레 소장은 지역 공동체는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민리 레 소장에 따르면 각 주와 도시는 지방정부 산하 문화유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다시 중앙정부와 유네스코에 보고해야 한다.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은 지금까지 시행된 방법들에 관한 자넬리 교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에게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시행된 전략들과 관련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대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한 마을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마을에서는 부모, 조부모 등 일가친척이 모두 각 자녀의 교육에 참여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일가친척들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유산과 전통 기술을 익힐 수 있다. 그러나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이러한 마을이 사라지면서 전통 기술도 함께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형유산 교육 워크숍과 보호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면 젊은 세대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식, 비공식 교육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지지 차관의 발표문에 제시된 도제모델도 효과가 있겠지만 무형유산을 공식 교육에 편입시켜 사회 구조 내에 활용하는 것도 무형유산 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투아부아부아 문화담당관은 팀 커티스 문화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팀

커티스 문화부장은 전날 회의에서 무형유산 보호 증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관과의 공식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팀 커티스 문화부장은 무형유산 보호 관련 내용을 중등교육 과정에 편입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과 과정 개발 담당자들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의 교과 과정 포함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어서 관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논리가 필요하다.

커티스 문화부장은 현재 아·태 지역 4개국에서 교수 모듈(teaching module)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국가에 수백 개의 문화 공동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교과 과정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커티스 문화부장은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커티스 부장에 따르면 무형유산 보호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킨다는 개념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적용할 경우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개발된 모듈도 적용상의 난맥으로 교과 과정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타차리아 대표는 상업화라는 부작용을 겪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형유산의 활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답변을 제시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상업화 문제를 인정했다. 공동체는 무형유산 공연을 보는 청중의 요구에 부합하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거래하는 시장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산의 진정성이 소실되기도 한다. 바타차리아 대표는 사례로 족자 전문 화가를 들었다. 전통을 보호하는 족자 전문 화가와 일반 화가 사이에는 차이가 엄연하게 존재한다. 일반 화가는 족자 전문 화가를 모방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족자 전문 화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커티스 문화부장은 경우에 따라 상업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업화가 진전되면 무형유산의 가치가 소멸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커티스 부장에 따르면 무형유산의 소멸은 연행자가 자신의 기예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공동체가 보기에 경제성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국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의 경제 활성화와 무형유산 보호 증진 노력을 동시에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갈라 교수는 무형유산 연행자와 연행 환경의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했다. 갈라 교수는 맥락에서 벗어난 무형유산의 연행으로 결국 진정성을 훼손시키게 하는 상업화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사례 연구와 그 결과의 공유를 더 활발하게 이루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적용된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를 공유하게 되어 고무됐다고 밝혔다. 또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모두 연구하는 것이 방법론 개선에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갈라 교수는 네트워킹을 통한 지식 공유 활성화를 제안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상업화는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 개인들이 무형유산으로 금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가운데 간혹 연행자가 아닌 경우도 발생한다. 아이카와 교수는 정부,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에 의해 상업화가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갈라 교수의 말에 동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심도 있는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토론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회의는 이삼열 사무총장의 마무리 발언 후 서기 요약문 제출과 함께 만차차리타디푸라 대표의 폐회사를 끝으로 이틀간 진행된 막을 내렸다.

기록 및 정리 : 다니엘 조셋